

“ 화학업체 SK케미칼(대표 홍지호)이 1000억원대의 국내 자동차용 흡음재 (소음제거 소재)시장을 공략한다.

SK케미칼은 자동차 실내 소음은 물론 차내 악취를 없애주는 PET 흡음재 "스카이(SKY)보드"를 개발해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에 공급 하는 등 시장 석권에 나섰다"고 지난 9월 14일 발표했다. ”

차소음제거 시장 잡는다

화학업체 SK케미칼(대표 홍지호)이 1000억원대의 국내 자동차용 흡음재 (소음제거 소재)시장을 공략한다.

SK케미칼은 자동차 실내 소음은 물론 차내 악취를 없애주는 PET 흡음재 "스카이(SKY)보드"를 개발해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에 공급 하는 등 시장 석권에 나섰다"고 지난 9월 14일 발표했다.

스카이보드는 모직물 등 폐섬유로 된 펠트를 사용한 중전 흡음재와 달리 페트수지를 사용해 가볍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흡음기능이 뛰어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형욱 스카이비바 팀장은 "스카이보드는 자동차 엔진룸, 천장, 사이드 도어 등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 소재에 비해 가벼워 완성차 조립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흡음재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SK케미칼이 약 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SK흡음재는 EF쏘나타, XG그랜저, 쏘라티, XD아반테 등 현대자동차의 거의 전 차종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이달부터 출시하는 스펙트라 후속 모델과 내년 옵티마 후속모델 등 기아자동차에도 적용된다.

또 르노삼성자동차 SM5시리즈도 엔진룸 대시보드 일부에 스카이보드 제품을 사용했으며 대우자동차는 내년 신모델부터 PET 흡음재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케미칼, 中에 420만달러 수출계약

환경벤처기업인 (주)그린케미칼(대표 소재춘)은 자체 개발한 미세먼지 제거제(제품명 소일 하드너) 420만달러어치를 중국 베이징 결정매탄유한책임공사에 5년간 공급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계약에 따라 이날 처음으로 20t을 선적했으며, 앞으로 5년간 최소 2천280t의 수출물량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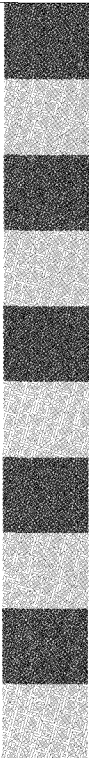
소일 하드너는 석탄이나 공시장의 야적물 위에 뿌리면 표면에 투명한 막이 형성돼 미세먼지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표면경화제로 석탄 등과 혼합돼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포플러, 축산폐수 연 0.6t 정화효과

포플러 한 그루가 연간 0.6t 가량의 축산폐수를 정화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포플러 정화림을 시범적으로 조성, 폐수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3년생 포플러 한 그루가 하루 8t, 연간 600여(0.6t)를 흡수,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수질 오염원인 질소를 연간 247g까지 잎과 줄기에 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포플러가 생장이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뿌리가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 많은 양의 축산분뇨를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포플러류 중 축산폐수에 대한 적응력은 '현사시' 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3년생 포플러로 정화림 1ha(2x2m간격, 2천500그루)를 조성할 경우 연간 1천500t의 축산폐수를 정화할 수 있으며 폐수처리비용도 연간 4천100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M글로벌 대리점 유통업 진출

환경가전업체인 JM글로벌(대표 두진문)이 산소발생 설비시스템을 개발하고 대리점 유통사업에 진출했다.

JM글로벌은 최근 실외기 1대에 여러 개의 산소공급기를 실내에 설치할 수 있는 OMS(Oxygen Multi System)를 개발하고 이를 영업 유통하는 "JM 산소플라자 O2365"를 모집한다고 지난 9월 2일 밝혔다.

JM글로벌은 그동안 실외기 1대에 실내기 1대를 설치할 수 있는 산소발생기 및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방문판매로 유통시켜 왔으나 이번에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유통 채널을 혁신한 것이다.

두진문 사장은 "OMS는 실외기 1대에 실내에 여러 개의 산소공급기를 연결해 개별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병원 PC방 헬스클럽 독서실 찜질방 노래방 달림방 등 고객이 많이 모이면서 밀폐된 장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JM글로벌의 OMS 대리점은 독자적 점포 혹은 흡인습 매장 운영도 가능하며 10~15평 규모의 사무실 및 3000만~5000만원 정도의 초기자본금을 확보하면 된다.

대리점주는 본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JM글로벌은 AS와 광고 등 다양하게 판촉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진전기, 매연저감장치 사업 주력

일진전기(대표 홍순갑)가 ㈜일진과의 흡수합병후 미래환경 신소재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홍순갑 일진전기 대표는 앞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등 환경관련사업, 전력에너지 절감사업, SOC(기반구축) 사업 등 미래환경 신소재사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7년까지 부채를 모두 탕감해 무차입 경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진전기는 이달 27일 ㈜일진을 흡수해 총자산 4천 937억원, 올해 예상 매출 3천520억원의 국내 3대 종합 케이블메이커로 부상케 된다.

홍 대표는 "그동안 전력선(일진전기)과 통신선(㈜일진)으로 이원화됐던 생산체계를 일원화해 단품생산 방식에서 프로젝트 또는 일괄수주(턴키)방식 등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경영합리화, 중복투자 방지, 인원 설비 효율 등 효과를 기대한다"며 "실적이 따르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 할 것"이라고 말했다.

PFC가스 저온분해 기술 국내 개발

반도체 공정에서 배출되는 주요 환경오염 물질인 불화화합물(PFC) 가스를 저온에서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기술부 박용기·김희영 박사

팀은 "반도체 공정 유해 폐가스 처리기술 개발" 과제를 2001년부터 수행, 반도체 공정에서 배출되는 PFC 가스를 2차 환경 오염물질의 발생 없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촉매식 처리기술과 장비를 개발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PFC 가스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로 분류돼 전세계적으로 감축 대상이 되고 있다.

기존의 연소식 PFC 처리장비는 섭씨 1천2백도 이상의 고온을 필요로 했으나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섭씨 8백도 이하의 온도에서 99% 이상의 분해 효율을 보였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특히 질소산화물이나 오존 등 2차 오염물도 전혀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박용기 박사는 "촉매식 PFC 세정 장비는 현재 세계에서 일본의 히타치사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세정기는 일본 제품과 기술의 원리는 비슷하지만 품질에서는 한발 앞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개월 이내에 상용화가 되면 연간 3백억 원 규모의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삼화페인트, 다기능 친환경도로 에버그린 출시

삼화페인트는 유기용제나 중금속, 도장 후 악취 등을 제거한 친환경 도로 "에버그린"을 출시한다고 지난 9월 17일 밝혔다.

삼화페인트에 따르면 에버그린은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원적외선 방출, 곰팡이 방지 등 다양한 기능과 함께 유기용제나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고 도장후 발생하는 독한 냄새를 없앤 제품이다.

회사 측은 "시공직후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

므로 병원, 호텔 등의 부분적인 공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수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이 제품을 사용한 도장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삼화페인트는 친환경도로인 에버그린 출시와 동시에 당사의 전대리점을 통해 홍보용 지주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녹·적조 제거 탁월한 효과 제품 출시

녹·적조를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신물질이 개발돼 제품화됐다.

쥘디엔텍(대표 박병배, 충남 연기 소재)은 녹·적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신물질을 개발, 제품화한 '옥시월드'를 출시했다고 지난 9월 16일 밝혔다.

마그네슘과 칼슘 등을 주 원료로 한 신물질로 만든 이 제품은 분말 형태로, 녹조나 적조가 발생한 물에 넣을 경우 녹조 미생물과 코콜로디니움 등 적조 미생물, 녹·적조 발생원인 물질인 질소와 인 성분을 화학적 응집을 통해 원천 제거하게 된다.

또 물 속에 장기간 산소를 발생시켜 용존 산소를 증가시키으로써 어류 등의 폐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뿐 아니라 제품 자체가 알칼리 물질이어서 물속 바닥층이 썩으면서 산성화되는 것도 동시에 방지해 준다.

이건산업, 친환경 합판 신제품 출시

이건산업은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획기적으로 줄인 환경합판 "네오데코판넬"을 생산하고 있으며, 1차 사업연도에 1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난 9월 17일 발표했다. ◀